

1. 구원의 커트라인?

어렸을 때 부흥회에 참석하면 목사님들이 자주 던지는 단골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누구보다 크게 “아멘!”을 외치며 속마음을 감추던 기억이 납니다. 겉으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되문곤 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까?’

어떤 이단 교파에서는 구원의 ‘특정 시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식이죠. 이런 극단적인 시각이 얼마나 오류인지 알면서도, 웬지 나도 그 ‘특정 시점’을 알아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강렬하면서도 이 제목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긴장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 면류관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개털 모자만으로도 족하니, 구원의 커트라인 안쪽에만 머물러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현실과 마음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말이죠. 사람들은 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은 불안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한데, 문제가 많고 부끄러운 사람인데, 주일성수도 제대로 못하는데, 십일조는 어땠고, 뜨거운 체험도 없었잖아.. 불안과 열등감에 사로 잡히기도 합니다.

때론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대조하면서 상대적 깨끗함을 느끼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신은 구원의 커트라인 안에는 속했다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런 질문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많은 이들이 구원의 확신 앞에서 고민하며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그 불안한 구원을 증명 받기 위해 종교적 행위에 더 몰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과연 올바른 질문일까요? 성경적인 질문일까요? 누군가에게 구원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을 너무 사적인 영역으로 가두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피어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체로 일하심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은 타인의 질문이나 평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함께하시는 성령의 내적 일하심 위에서 형성됩니다. 개인의 '증명'이나 '확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체로 일하시는 신앙 경험인 것이죠.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내적 물으심이 아닌, 타인의 물음으로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라고 말이죠. 이 대답은 특정 시점이나 행위, 불안한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성령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누군가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어떤 말로 대답을 하셨나요?

→ _____

-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왜 불안해 할까요?

→ _____

- '구원이 커트라인'이라는 표현에 공감한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_____

-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구원의 커트라인 안에 있는가'를 평가했던 경험이 있나요?

→ _____

- 성령의 내적 일하심을 신뢰하며, 구원을 '증명'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본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저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라는 불안과 의심 속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두려움 대신 감사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종교적 행위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